

폐자원활용은 一石三鳥의 사업입니다

■ 편집부



● 공사에서는 그동안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을 비롯, 고지와 고철 등을 수집해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폐기물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시설과 관리 시스템은 단순하고 비과학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재활용품 발생량과 수집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본 공사에서는 마을부녀회나 노인회에서 분리수집해 놓은 재활용품들을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 수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재활용품발생량은 5,969천톤에 달합니다. 이중 본 공사에서 204천톤, 고물상,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소 등 민간부문에서 2,745천톤 수집, 총 2,949천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쓰레기발생량 중 2.9%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엔 고물상, 재건대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해 효과를 거뒀으나 유통구조의 발달과 재자원화시장의 불황 등으로 사양화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민이 분리한 재활용폐기물을 혼합수거하므로써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수거체계가 현실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제도도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의 정착 및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한 국가적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부터 공사산하에 재활용

사업소를 설치,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 매입후 선별 압축 파쇄의 과정을 거쳐 재자원화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활용사업의 사업방향과 세부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우선 현재 농촌위주의 수집에서 도시까지로 확대하며 수집품목 역시 기존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다 종이, 수지, 캔, 금속, 빈병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집방법을 말하자면 우선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및 공공장소 발생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집하고 기타 가정으로부터의 분리수거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체계에 의해 수집후 재활용사업소에 운송됩니다.

이와 병행해 기존 민간 수집조직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경제적 Incentive를 증진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농촌지역엔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폐비닐과 농약빈병수거시 재활용품을 동시 수집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인력과 재정도 배이상이 확장될 것입니다.

● 폐기물재활용사업소는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여 종류별로 선별, 재활용자원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군요.

전국적인 설치현황을 설명해주시죠

— 현재 서울시에서 3천평을 임대받아 성산동에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엔 전국적으로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9, '93년에 31개소 등 총 77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2,433천톤이 선별 자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소별로 관리동 30평 선별장 200평, 보관창고 100평 등 기본시설이 설치됩니다. 선별시설은 콘베어벨트라인과 압축기, 크레인 등 장비로 1일 50톤이상의 대량선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류된 재활용품을 재생업체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장비와 운영비는 정부보조로, 재활용품 매입비는 은행차입(공사)으로 부족재원



▲ 본 연합회 李龍雲회장과 대담중인 劉哲編이사

분리수거의 정착 및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한 국가적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부터 공사산하에 재활용사업소를 설치,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 매입후 선별 압축 파쇄의 과정을 거쳐 재자원화할 것입니다.

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익금은 분리수거용 봉지나 재활용통을 제작하는 등 분리수거제도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 재활용사업소 설치운영에 따른 경제적효과는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 올해 17개소를 설치운영해 예상수집선별량인 년 100만톤의 재활용품을 자원화할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원천적으로 감소됨은 물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따른 사회비용의 절감과 매립장의 수요감소로 매립장시설과 관리비용이 절약되며, 폐자원의 수입대체로 외화절감효과도 가져옵니다. 이를 계산해본다면 사회전체의 환경관리비용 192,622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